

변산반도 지질과 생태계 탐험

와! 7천만 년 전
지구의 보물을 찾았어!

AI 도움받아 이경관 쏘



변산반도 지질과 생태계로 떠나는 모험

1장: 수천만 권의 책이 쌓인 절벽

산이와 돌이, 풀잎이가 변산반도 채석강에 섰어요.

거대한 바위 절벽은 마치 수천만 권의 책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모양이었지요.

"이건 옛날 호수 바닥에 모래와 흙이 쌓여 만든 수평 층리야!" 돌이가 신나서 외쳤어요.

세 친구는 바위 책장을 넘기듯 해안선을 따라 조심조심 걸어갔어요.

그때 발밑에서 검고 단단한 바위가 나타났어요.



2장: 지구의 화난 콧김과 숨겨진 화석

"어? 여기는 왜 바위가 까맣지?" 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단단한 퇴적층을 뚫고 마그마가 뿜어져 나온 흔적이야!" 돌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풀잎이는 까만 바위 표면에서 선명한 조개껍데기와 나뭇잎 모양을 찾아냈어요.

"얘들아, 진짜 화석이야! 옛날에 여기가 호수였다는 증거지!"

신기한 보물을 찾은 세 친구는 더 큰 비밀이 숨겨진 해식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퇴적



조개 화석

식물 화석

습곡



강력한 압력

이 바위는
왜 물결칠까?

멸종된 고대 생물의 화석



와! 옛날 생물이
돌 속에 살아있어!

화산 활동과 지각 변동의 증거



어! 이 까만
바위는 뭘까?

3장: 거인이 구겨놓은 바위와 세계의 보물창고

동굴 깊은 곳을 비추자 평평하던 바위 줄무늬가 파도처럼 구불구불 구겨져 있었어요.

"양쪽에서 엄청난 힘이 꼭 누르면 바위가 이불처럼 구겨져. 이걸 습곡이라고 해!"

돌이가 공책을 꼭 눌러 보이며 설명했어요.

동굴 밖 표지판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마크가 멋지게 빛나고 있었지요.

"조심해! 변산에서만 자라는 귀한 변산향유야." 풀잎이가 가만히 코를 대자 상큼한
향이 퍼졌어요.

지구의 역사를 가득 품은 채석강을 지나, 세 친구는 아홉 보물이 숨겨진 깊은 숲으로
향했어요.



여기가 지구의
거대한 비밀 책,
채식강이구나!

총리

4장: 얼음 틈새 요정과 사계절 푸른 나무들

초록빛 짙은 내변산 숲에 들어서자 풀잎이가 소리쳤어요.

"앗! 얼음 틈새로 피어난 변산바람꽃과 선녀 부채를 닮은 미선나무야!"

은은한 꽃향기를 맡으며 걷는데 겨울인데도 초록 잎을 뽐내는 큰

나무들이 나타났어요.

"바다가 가까워 따뜻해서 그래. 후박나무와 호랑까시나무, 그리고 잎을 태우면

꽝! 꽝! 소리가 나는 광꽝나무는 나라가 보호하는 천연기념물 삼총사란다!"

산이의 설명을 들으며 숲길을 돌아서자, 발밑에서 보라색 풀꽃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내밀었어요.

후박나무
(Magnolia obovata)

호랑까시나무
(Ilex cornuta)

광광나무
(Ilex crenata)

산

돌이

후박나무
(Magnolia obovata)

광광나무
(Ilex crenata)

돌이

호랑까시나무
(Ilex cornuta)

변산바람꽃
(Eranthis byunsanensis)

미선나무

노랑붓꽃
(Iris odaesanensis)



5장: 변산의 보석들과 황금빛 마법 붓

머리 위에는 빨간 팔알 같은 열매를 매단 팔배나무가 대롱대롱 흔들렸지요.

그늘진 숲속에서는 꽃봉오리가 선비의 황금 붓을 닮은 노랑붓꽃이 환하게
빛났어요.

"이 마법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 숲이 온통 황금빛으로 변할 것 같아!"

이제 마지막 보물을 찾을 차례, 세 친구는 맑은 물소리가 들리는
계곡으로 내려갔어요.



노랑붓꽃

6장: 맑은 계곡 속 표범 무늬 불안종개

백천 계곡의 물은 속이 흰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투명하고 맑았어요.

돌이가 숨을 죽이고 물속 자갈 틈을 가리켰어요. "싯! 저기 봐!"

몸에 멋진 표범 무늬 줄무늬를 두른 작고 날씬한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오직 여기만 사는 멸종위기 생물, 불안종개야!" 풀잎이가 속삭였어요.

불안종개는 꼬리를 살랑 흔들고 숨어버렸지요.

숲의 보물을 모두 찾은 세 친구는 갯벌 생물들이 기다리는 드넓은 곰소만
갯벌로 달려갔어요.



7장: 갯벌의 하얀 보석과 짠맛 요정

눈앞에 끝없이 넓고 부드러운 회색빛 곰소만 갯벌이 펼쳐졌어요.
갯벌 입구 염전에서는 소금 장인들이 하얀 천연소금을 산처럼 모으고 있었지요.

"와! 눈이 쌓인 것 같아!" 산이가 감탄했어요.

염전 그트머리 짠 땅에는 마디가 통통한 초록색 식물 함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바닷물 속 미네랄을 먹고 자라는 염생식물이야. 씹으면 정말 짠맛이 나!"

풀잎이의 말을 들으며 진흙 갯벌로 발을 내딛자, 수많은 게들이 일제히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8장: 집게발 춤꾼들과 진흙 속 보물 조개

"붉고 커다란 집게발을 위아래로 흔드는 농게 좀 봐!" 돌이가 웃었어요.

농게 옆에서는 작은 칠게들이 부지런히 진흙을 입에 넣으며 갯벌을 청소했지요.

산이가 발가락 끝에 걸리는 딱딱한 진흙을 살살 파내자 줄무늬 조개가 쏙 나왔어요.

"심봤다! 시원한 국물을 내는 바지락이야!"

돌이도 옆에서 매끄럽고 하얀 조개의 여왕 백합을 찾았어요.

그때 물기가 자작한 진흙 위로 신기한 물고기들이 퐁퐁퐁퐁 뛰어올랐어요.



9장: 점프 선수들과 하늘의 사냥꾼새

"물고기가 땅 위를 다리로 걸어 다녀!" 산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가슴지느러미로 기어 다니다가 스프링처럼 높이 뛰는 못난이 귀요미 짱뚱어와 망둥어였지요.

하늘에서는 "끼룩! 끼룩!" 고양이 소리를 내는 꿩이갈매기가 날아다녔고, 그 너머로 부리가
길고 흰 큰 새들이 보였어요.

"호주에서 날아온 알락꼬리도요새야. 긴 부리로 게를 쓱쓱 잡아먹는단다." 풀잎이가 설명했어요.

수많은 생명을 키워내는 풍요로운 갯벌을 지나, 세 친구는 마침내 높은 전망대로 향했어요.



말뚝망둥어

- 망둑어과의 물고기
-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호흡을 하며, 진흙바닥을 파고 들어가서 알을 낳음
- 작은 갑각류, 곤충 등을 잡아먹음
-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강 하구의 모래나 켄 바닥에 서식
- 최대 10cm



별불가사리

- 별불가사리과의 불가사리류
- 육식성으로서 고동·갯지렁이·성게류 따위의 알이나 수생동물의 알을 잡아먹음
- 암초, 모래자갈 밑 서식
- 팔 길이가 약 6cm



썩

- 썩과에 속한 갑각류의 일종
- 해수 중의 미생물이나 유기물을 입 주변에 밀착해 있는 털다발에 걸러 먹음
- 조간대의 모래가 섞인 진흙바닥에 서식
- 몸길이 약 10cm



알락꼬리마도요

- 초승달 모양의 길쭉한 부리를 가진 나그네새
- 작은 무척추동물을 잡아먹음
- 개펄·간척지·삼각주·염전·농경지 서식
- 몸길이 60~66cm, 날개폭 약 110cm



개랑조개

- 개랑조개과의 연체동물
- 황갈색 겉데기를 가지고 있어 명주조개, 노랑조개라고도 불리며 식용으로 사용됨
- 조간대에서 수심 10m까지의 모래와 진흙이 섞인 바닥에 서식
- 겉데기 높이 약 6.5cm, 길이 약 9cm, 폭 약 4cm



백합

- 백합과의 조개
- 민물의 영향을 받는 조간대 아래 수심 20m까지의 모래나 펄에 서식
- 고급 패류로서 서해안에서 많이 양식됨
- 겉데기길이 약 9cm, 높이 약 7cm, 폭 약 4cm



큰구슬우렁이

- 구슬우렁이과의 복족류
- 조개류를 잡아먹음
- 조간대로부터 수심 50m 사이의 고운 모래바닥에 서식
- 살은 무침이나 찌개 등에 이용됨
- 각고 약 3.5cm, 각폭 약 7cm



달랑게

- 달랑게과의 갑각류



새알조개

- 소형의 부유물 여과섭식성 조개류
- 비식용 패류
- 갯벌 조간대의 모래 섞인 진흙바닥에 파고들어가서 서식
- 각장 1.5cm전후



10장: 석양의 전망대, 하나로 연결된 기적의 땅

높은 전망대에 오르자 아늑한 내소사 숲과 웅장하게 쏟아지는 직소폭포가 한눈에 보였어요.

어느덧 서해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며 하늘과 바다가 온통 주황빛 낙조로 물들었어요.

"절벽과 숲, 갯벌과 폭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 산이가 붉은 바다를 보며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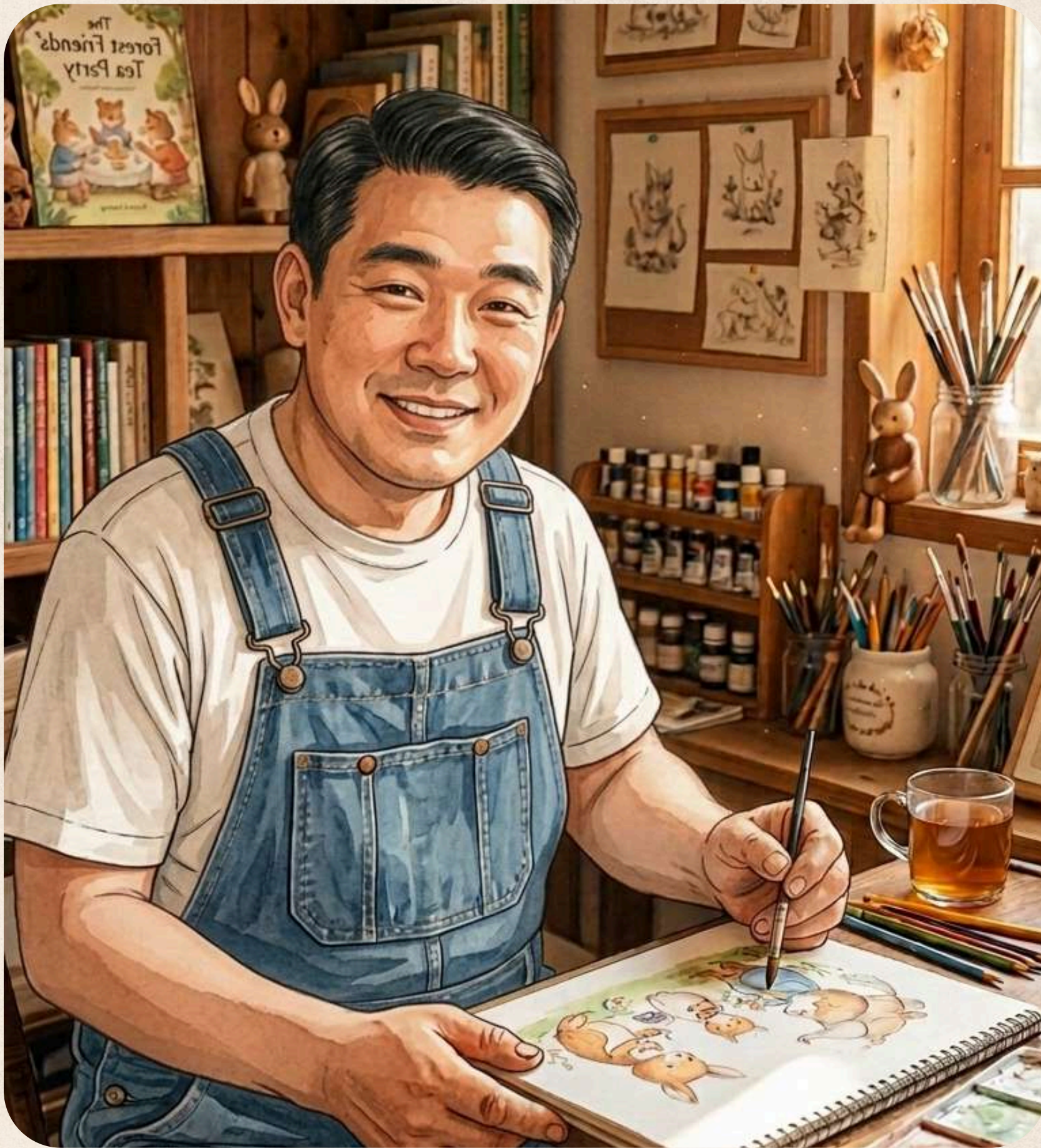
"수천만 년의 지질 역사가 산을 만들고, 숲이 생명을 키우고, 흘러내린 물이 갯벌을 풍요롭게 만든 거니까." 돌이와 풀잎이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세 꼬마 모험가는 손을 꼭 잡고, 변산반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소중히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변산반도의 숨겨진 보물을 찾는 모험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겁니다.

긴 이야기 읽고 이해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작가프로필

변산의 품에서 태어나 산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작가입니다. 스스로를 ‘산바보’라 부를 만큼 산을 좋아해, 시간이 날 때마다 숲으로 떠나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모두가 움츠러드는 하얀 겨울을 사랑하고, 추위를 뚫고 피어나는 여린 ‘변산바람꽃’에서 깊은 감동을 느끼는 순수한 감성을 지녔지요. 삶의 도전 앞에서는 늘 "일단 해보자!"라며 씩씩한 용기를 내는 멋진 어른입니다. 손주들을 바라보는 인자한 눈빛으로, 오늘도 자연이 건네는 다정한 위로와 모험 이야기를 따스하게 적어 내려갑니다.

